

강원, 신 · 재생에너지 “애물단지”

전기요금 4억원에서 태양광 2000만원 불과 ... 풍력발전 정부보조 줄어

강원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및 효율성 면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불규칙한 일조량 등으로 목표 발전량을 밑돌고 있으며 풍력발전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데다 정부 보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도청 주차장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전력생산은 계획발전량인 22만kW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전력 생산량은 12만5277kW로 계획발전량의 77.4%에 그쳤고, 2009년 12만979kW로 80.9%, 2010년 11만9658kW로 62.1%에 머물렀다.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의 역할도 미미한 수준으로 도청의 전기 사용요금은 4억원 가량이나 태양광발전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수명이 평균 20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투자비 회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풍력발전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지자체들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인제군은 8월까지 1년 4개월 가량 풍력발전을 가동해 201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억3000만원의 판매금액을 기록했으나 예상 금액인 6억7000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투자한 39억7600만원을 회수하는 데는 2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20년 정도에 불과하며 15년이 넘으면 노후로 잔고장이 많아지면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지자체의 참여도 부진해 2011년과 2012년 완공 예정인 신규 풍력발전단지 11곳 119기 중 민간기업은 9곳 115기에 참여했으나 지자체는 태백과 인제 등 2개 시 · 군에 불과한 상태이다.

투자 · 운영자금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적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60% 이상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풍력발전 설치 및 가동에 따른 산림훼손과 소음공해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도 지자체들이 풍력발전을 꺼리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5>